김제시 치매안심센터, 어르신 힐링 나들이 운영

김제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센터장 정명자)는 지난 18일 치매예방교실 참여자들과 임실군으로 나들이를 다녀왔다.

외부활동 기회가 적은 어르신들과 함께 붕어섬생태공원 관람 및 치즈테마파크에서 다양한 체험을 진행했다.

붕어섬생태공원에서는 다양한 꽃과 여러 가지 수종의 나무들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경관을 바라보며 산책을 했으며 호수를 가로지르는 옥정호 출렁다리를 건너 전망대에 올라 풍경을 감상하기도 했다.

또한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치즈, 쌀피자 만들기 등 이색적인 체험을 하며 다양한 감각을 자극시켜 인지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상반기 치매예방교실 나들이는 180명의 대상자(만 60세 이상)가 참여하며 총 3회기로 나누어 진행하며, 앞으로 5월 23일, 5월 30일 2회 더 진행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양현중 '아름다운 우리 동네 만들기' 캠페인

전주 양현중학교 학생자치회(회장 정시우)와 학부모회(회장 이경훈)에서 시작한 '아름다운 우리 동네 만들기' 캠페인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학생자치회와 학부모회는 지난 20일 만성지구 일대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우리 동네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올해로 2년차를 맞는 이 캠페인은 전주양현중학교학생자치회와 학부모회가 중심이 돼 공원과 도로 주변의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정화 활동과 더불어, 거리 흡연 자제 홍보 활동도 펼쳤다.

특히 이 캠페인은 인근 만성중학교에도 이어졌다.

올해 처음 캠페인에 참여한 전주양현중학교 이누리 학생(1년)은"학생들이 중심이 돼 지역사회와 함께 자신이 생활하는 지역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진정한 학생자치를 실현하는 시간이었기에 뿌듯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남원 산내중, 지리산 둘레길 활용 토요수업

남원 산내중학교(교장 우창숙)는 지난 20일 지리산 둘레길을 활용한 토요수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리산 둘레길 걷기 토요수업은 학교가 자리한 지리산권의 대자연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펼쳐지는 풍경 속에서 중학생들의 심신의 조화로운 성장과 정체성의 확립을 도모하고 더불어, 주변의 자연 생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산내중학교는 지리산의 가장 깊은 품속에 자리한 학교로 48명의 학생과 16명의 교직원이 근무하는 학교다.

이번 토요수업에는 48명의 학생과 8명의 선생님, 그리고 지리산의 생태전문가인 2명의 숲해설가를 초청해 지리산 숲을 직접 체험함과 동시에 주변에서 친숙하게 볼 수 있었던 풀, 나무, 꽃, 물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우창숙 교장은 "이즈음 지리산은 순수한 자연의 화려함이 장관을 이룬다"며 "때죽나무꽃이 바닥에 떨어져 그 위를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며 걷는 것 자체만으로도 교육자로서 큰 축복"이라고 말했다.

특히 "산딸기를 따먹고 정금나무를 만져보고 지리산의 이모습 저모습을 보며 감탄하면서 학생의 몸과 마음은 지리산만큼 커질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토요일에 정규 교육과정을 주변환경을 이용해 진행할 수 있음은 산내중학교 교직원들의 훌륭한 팀워크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꽃길만 걷자' 진안군 성년의 날 축제 개최

성년의 날 1년 앞둔 고3 청소년 대상 축하공연 · 체험행사 · 토크콘서트 등 열려

진안군청소년수련관(관장 한효림)은 지난 20일, 제51회 성년의 날을 기념하여 예비 성년이 되는 지역의 고3 청소년을 대상으로 '꽃길만 걷자'라는 주제로 성년의 날 축제를 개최했다.

청소년수련관 야외마당과 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성년의 날을 1년 앞둔 청소년들과 학부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축하공연, 체험행사, 기념식, 토크콘서트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청소년을 위한 음악이야기'라는 주제로 비긴어게인 등 방송출연으로 익숙한 가수 하림의 강연과 음악이 어우러진 토크콘서트가 진행돼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올해 처음으로 성년의 날 행사를 준비한 진안군은 인구감소지역이지만 청소년이 지역의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청소년을 위한 행사를 준비했고, 학부모들까지 적극 호응으로 참여하여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될 수 있었다.

행사에 참여한 청소년은 "다양한 체험과 공연을 정성껏 준비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했고, 부모님의 영상편지 등으로 더욱 감동적이었다"며 "앞으로도 해마다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당면한 학업 문제 등으로 힘든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이 잠시나마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됐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지역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잘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제시 보건소, 정신건강 프로그램 '청춘, 통하였느냐!' 운영

김제시 보건소(소장 정명자)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19일 군산 일대에서 김제시 노인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특별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인 '청춘, 통하였느냐! 시즌7'을 진행했다.

'청춘, 통하였느냐!'는 지난 2016년을 시작으로 올해 7번째를 맞는 마음행복 연계사업으로 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과 우울감이 있는 노인이 정서적 소통을 통해 상호 의지하여 지역사회의 건강한 마음정화 작용을 위해 기획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평소 삶의 무기력함을 느끼시는 우울감을 가진 어르신 7명과 사회적 고립감으로 우울감이 높은 학교 밖 청소년 7명을 짝꿍으로 연결하여 운영했다.

'청춘, 통하였느냐!'는 노인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상호 간에 긍정적인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짝꿍 정하기(노인/청소년 파트너십) △역사 나눔하기(근대역사박물관 관람) △추억 나눔하기(교복체험 및 철길마을 관람) 등으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평소 할머니와 지내본 적이 없어서 가족에 대한 외로움을 느꼈는데 함께 해준 짝꿍 할머니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셔서 편안하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정명자 김제시 보건소장은 "핵가족화가 가속화되어 세대간 교류기회가 절대적으로 축소되는 현 사회에서 이번 행사로 상호긍정적인 교류를 통해 청소년들과 노인 모두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과 어르신들의 상호긍정적인 접촉과 질적인 교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제시민의 정신건강서비스 관련은 김제시보건소(063-540-2716),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063-542-1350)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장수(長水)에서 장수(長壽)하자'… 생명살리기 맨발걷기 행사 성료

'장수(長水)에서 맨발걷기로 장수(長壽)하자!'라는 테마로 진행된 제4회 생명살리기 맨발걷기 대회가 지난 20일 장수 승마로드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장수군이 후원하는 제4회 생명살리기 맨발걷기 대회는 약 600여명의 참여자들이 모인 가운데 장수군 승마로드에서 진행됐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잘 어우러진 장수 승마로드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천천 장수승마장에서 장척삼거리까지 약 3.4km를 왕복했으며, 맨발걷기로 건강을 되찾은 분들의 치유사례 발표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돼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직접 승마로드를 걸으며 승마로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더불어 이번 행사에서 장수군 대표축제인 제17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홍보부스와 장수군 농·특산물 1일 장터부스 등을 운영하며 외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장수군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홍보도 이뤄졌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이번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생명살리기 맨발걷기대회가 우리 장수군 승마로드에서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군민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전국에서 찾아오는 장수군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해 대한민국 청정장수, 치유의 장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체육회장기 종목별대회 개최

지난 21일 공설운동장과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2023년 진안군 체육회장기 종목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진안군체육회(회장 정봉운)가 주최하고 각 종목별 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배드민턴, 축구, 탁구, 궁도 4종목을 우선적으로 먼저 개최했으며 약 400여명이 참가해 종목별 동호인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뽐내며 자웅을 겨뤘다.

진안군 체육회장기 종목별 대회 중 파크골프와 당구 2종목은 각각 5월 31일, 7월 11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www.j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5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내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 · 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3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효자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6789-008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858-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새마을운동 진안군지회, 3NO청결운동 실시

새마을운동진안군지회(회장 이상봉)는 22일 새마을 남·여지도자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안읍 남광아파트부근에서 장수방향 도로변에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쓰레기 안버리고 안묻고 안태우기의 3NO청결운동과 함께 걷기와 달리기를 하며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줍깅데이' 캠페인을 함께 벌이고, 도로변과 하천에 버려진 각종 생활 쓰레기를 주웠다.

이상봉 회장은 "3NO청결운동을 통해 쓰레기 줍기를 생활화 해 탄소중립실천과 함께 깨끗한 진안군을 만드는데 군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임실 성수면, 영농철 농촌 일손 돕기 나서

성수면이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고령 영세농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최근 농촌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이번 일손 돕기는 임실군청 행정지원과,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및 성수면 직원 20여 명이 참여해, 양지리 약 450평 규모의 고추밭에서 고추 지주목 세우기, 고추줄메기 작업을 하면서 구슬땀을 흘렸다.

/임실=진홍영 기자

김제시, 어린이 · 청소년의회 아카데미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2일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이하 센터)에서 '나와 정치의 거리 줄이기'라는 주제로 어린이·청소년의회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아카데미는 10월 11일까지 진행되며 YMCA 민주시민교육 퍼실리테이터양성 과정을 이수한 센터 실무자들이 자체 개발한 커리큘럼이다. 이번 차수에서는 정치와 나와의 거리를 줄이고 아이스브레이킹을 통해 의원 간 마음의 벽을 허무는 시간이 준비됐다.

아카데미는 △국회 견학 △오리엔테이션 △환경교육 △미디어리터러시 △정책발굴 △정책제안 대회 등 총 7차시로 구성돼 의원들은 앞으로 정책 참여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배우고 지역 현안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정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소방서, 음식점 주방 화재 예방 위한 주의 당부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는 22일 음식점 주방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방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음식점 화재의 대부분은 음식을 조리하는 주방에서 발생하며, 주방 후드·덕트 등 환기시설에 기름이 고착된 후 조리과정에서 불티가 착화되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른 안전수칙은 △후드·덕트에 동식물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설치 △주방 후드 및 배기덕트의 기름찌꺼기 정기적인 청소 실시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K급 소화기 비치 △조리 중 자리 비우지 않기 등이다.

또한 주방 화재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소화장치를 천장에 설치하면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분사해 화재 초기 진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소방차 출동환경 개선협의체 회의 가져

남원소방서는 22일 소방출동로 개선을 통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 출동환경 개선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이태원 사고, 순창 조합장 선거 사고 등 다수 사상자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방차 신속 출동과 재난대응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으며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유지는 필수적 요소가 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남원시 관계자와 남원경찰서 관계자가 참석해 △소방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 집행 시 유관기관 상호 협조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환경개선 방안 논의 △소방차 길 터주기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협조 등을 논의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소방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당부

장수소방서(서장 최경천)는 22일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화기 취급이 많은 음식점 등의 주방에서의 화재 예방을 위해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당부했다.

음식점 주방은 후드·덕트에 기름이 고착돼 조리 시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며 후드·덕트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는 외부에서 진압이 어려울뿐더러 유류 화재인 경우가 많아 물을 이용한 화재진압이 어렵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열 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소화약제를 방출해 화재 초기 진압에 매우 효과적인 소화장치다.

/무주=전문선 기자